

##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활성화 방안

이정록\* · 박종천\*\* · 김혜영\*\*\* · 윤이나\*\*\*\* · 유선경\*\*\*\*\*

**요약:**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군산 비응항은 복합관광어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개발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비응항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고, 개발사업의 효과 역시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숙박시설의 고급화와 해양레포츠시설의 개발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비응해수욕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해안 데크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종합리조트 조성과 해양레저 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비응항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행정적 노력과 상인들의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 등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군산 비응항, 새만금, 관광개발사업, 주민인식, 개발효과, 지역활성화 방안

### 1. 서론

#### 1) 연구목적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해양관광단지 개발과 복합관광어항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다. 또한 지역 활성화의 주요전략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폐광지역, 도서지역 등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이다(정봉섭, 2010). 이는 투자비용 대비 개발효과가 비교적 단시간 내에 발생하고,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되며, 그 수익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때문에 관광개발의 분야에 있어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도시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주민의 인식 및 평가태도는 도시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의 성공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며, 최근 일부 학자들은 도시나 지역의 경제발전정책에 대한 주민평가모델을 개발하는데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Reese and

이 논문은 2011년도 호남씨그랜트사업단 연구개발사업(새만금 시대를 대비한 비응항 활성화 방안 연구)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교수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시간강사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박사과정

\*\*\*\*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석사과정

Fasensfest, 1997; Sharp and Bath, 1993; Smoke, 1997; 이정록, 2006).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지역관광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Ko & Stewart, 2002; Sheldon & Abenoja, 2001; 고계성, 2011)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주로 관광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시행되었는데 이승구·최규성(2006)은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에 관해 연구했고, 조배행·최영희(2005)는 관광개발 경과에 따른 안면도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의 변화에 관해 연구했다. 또한 고계성(2010)은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차이를 경남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이 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이들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영향 인식과 태도에 대해 주로 분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의 특성을 살펴보고,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비응항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비응항 활성화방안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자료

### (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관광복합어항으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비응항 인근에 거주 또는 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활성화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1년 9월 24일~25일인 주말 이틀간 비응항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원이 각각 개별 상가에 방문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조사한 결과 응답자 84명 중 불성실한 응답 2부를 제외하고 총 82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활성화 지원책, 인구통계학적 문항 등 총 2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sup>1)</sup>.

표 1. 지역주민 설문조사의 구성

구분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응항과 관련시설에 대한 인식</li> <li>• 비응항 인근 불편사항 및 문제점</li> <li>• 주민들의 관광객맞이를 위한 준비 정도</li> <li>• 관광객에게 추천하는 관광요소</li> <li>•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li> </ul>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경제성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li> </ul>
비응항 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응항에 유치하고 싶은 관광·여가 시설</li> <li>• 비응항해수욕장 활용 방안</li> <li>•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li> <li>•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및 기타의견</li> </ul>
인구통계적 속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별, 나이, 결혼여부, 학력, 직업, 월매출, 거주지, 거주기간·목적</li> </ul>

본 연구에서 조사된 자료의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19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으며, 변수별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 연구 자료의 통계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군산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분석하고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표 2).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70.7%, 여성이 29.3%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41.5%, 30대가 28.0%로 전체 응답자의 70%가량이

30~40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학력은 대졸이 43.9%, 고졸이 37%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기혼이 80.5%, 미혼이 18.3%로 대다수가 기혼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본집단은 30~40대의 대졸 기혼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다음으로 월평균 매출액은 201~300만원이 26.8%, 101~200만원이 24.4%를 차지하였다. 직업은 자영업자가 36.6%, 판매서비스업이 28.0%로 나타났으며 주로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영업기간은 2년이 40.3%, 3년이 31.3%로 2009~2010년 사이에 영업을 시작한 사람이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응항 주변 개발 기간과 연계된 결과로 생각해

표 2. 인구 통계학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항목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8	70.7	월평균 매출액	100만원 이하	10	12.2
	여성	24	29.3		101~200만원	20	24.4
결혼 여부	20세 이하	1	1.2		201~300만원	22	26.8
	20대	4	4.9		301~400만원	14	17.1
	30대	23	28.0		401만원 이상	14	17.1
	40대	34	41.5	영업 기간	1년	15	18.8
	50대	18	22.0		2년	32	40.0
60세 이상	2	2.4	3년		25	31.3	
5년 미만	2	2.5	4년		6	7.5	
결혼 여부	미혼	15	18.3	거주 기간	5년	2	2.5
	기혼	66	80.5		5년 미만	23	59.0
학력	중졸이하	4	4.9		5~10년	6	15.4
	고졸	37	45.1		11~15년	3	7.7
	대졸	36	43.9		16~20년	1	2.6
	대학원졸 이상	4	4.9	20년 이상	6	15.4	
직업	농수산업	12	14.6	거주지	10km 이내	36	44.4
	경영관리직	2	2.4		10~20km	5	6.2
	판매서비스업	23	28.0		기타 군산	27	33.3
	사무기술직	1	1.2		군산 외	13	16.1
	전문직	6	7.3	거주 목적	원주민	4	4.9
	생산 기능직	2	2.4		상업목적 이주	66	80.5
	공무원	1	1.2		기타	12	14.6
	자영업자	30	36.6	합계(n)		82	100.0
	주부	4	4.9				

※각 문항별 상이한 결측값 있음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는 비응동동, 미성동, 성남동, 수성동을 포함한 반경 10km 이내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옥서면, 옥구읍, 옥산면, 회현명을 포함한 반경 10~20km 이내가 6.2%, 기타 군산시내가 33.3%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은 5년 미만이 59.0%로 가장 높았으며, 5~10년과 20년 이상이 각각 15.4%로 2순위로 나타났다. 거주 목적은 상업목적으로 이주했다는 응답자가 80.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비응항 개발에 따른 상업 활동을 위한 이주가 주목적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연구지역의 개관

전라북도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군산시는 우리나라 격자형 국토공간구조에서 새로운 성장 발전축으로 형성되고 있는 서해안 중부권 거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허브마켓으로서의 한반도 대운하 중 중부권 및 호남권을 연계시키고, 중부권, 수도권, 서남권 등의 배후세력권으로부터의 접근성이 우수하여 활성화가 기대되는 지역이다.

서남 관광권 서북단의 전주·군산권에 포함된 군산시의 2009년 연간 관광객 수는 약 530만 명으로 전라북도 전체 관광객 수의 10% 정도를 차지한다<sup>2)</sup>. 군산시의 관광객 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4년 급격히 증가한 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인다, 2008년부터 주춤하기 시작하였다. 2009년도의 월별 관광객 수를 보면, 4월부터 10월까지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가 일정수준 꾸준히 유지되고 있으며, 11월에는 관광객 방문이 집중된다. 군산시는 주로 겨울철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그 요인으로는 새만금전시관 및 새만금방조제 연결에 따른 효과로 파악된다.

비응항은 2003년 7월에 착공하여 2007년 10월 준공되었다. 개발사업을 통해 방파제 및 방파호안, 물양장을 갖추었으며 총 사업비는 1,775억원이 투자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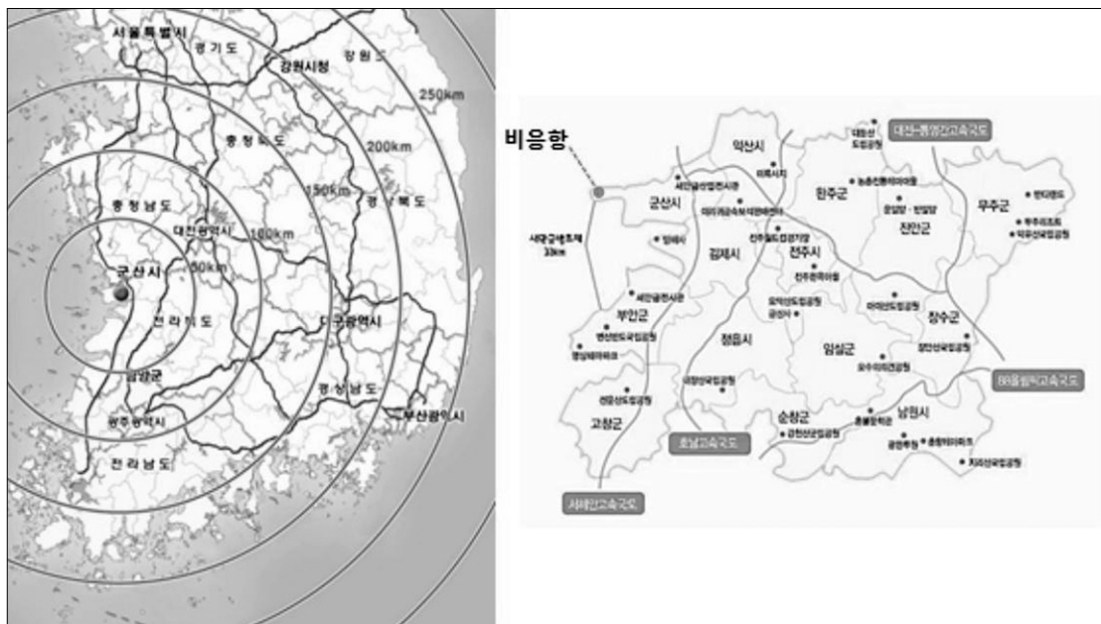


그림 1. 군산 비응항의 지리적 위치

었다<sup>3)</sup>. 비응항의 면적은 약 50만1천m<sup>2</sup>이며, 도시계획시설로 용도지역구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녹지지역이 비응항 전체 면적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미세한 차이로 상업지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비응항 배후부지(414,113m<sup>2</sup>)는 판매시설 및 음식점부지, 업무용지, 산업용지, 콘도·호텔·위터파크 등의 숙박시설용지, 스쿠버·보트 등의 해양레저시설용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일부시설은 운영 중에 있다. 또한 해상관광기지 및 유통 중심의 복합 기능과 어항활성화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비응항이 위치한 비응도동의 인구(2009년 현재)는 112명으로, 군산시 전체인구의 0.04%이며, 세대수는 62가구이지만 상주인구가 거의 없고, 노령화 정도는 매우 낮은 4.5%를 보이고 있다.

비응항 내에 상가는 총 58개소이며, 주요 업종은 어시장, 위판장, 음식점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sup>4)</sup> 주로 동종 업종끼리 밀집되어 있다. 그 중, 어시장은 6개소

(어시장 내 개별점포수 제외)로 새만금 수산시장 회식당, 새만금 도매 어시장 직거래장터, 비응항 궁전 수산시장 순으로 형성되어 있다<sup>5)</sup>.

비응항 내의 즐길거리로는 전망대, 청소년 해양체험활동교육 훈련장, 방파제, 비응도 등대, 월명 유람선이 있다<sup>6)</sup>.

### 3.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

#### 1) 비응항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

비응항은 2007년 10월 개장하여 현재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발은 완료되지 않았지만 기본 SOC는 조성 완료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비응항의 여건과 문제점에 대한 지역주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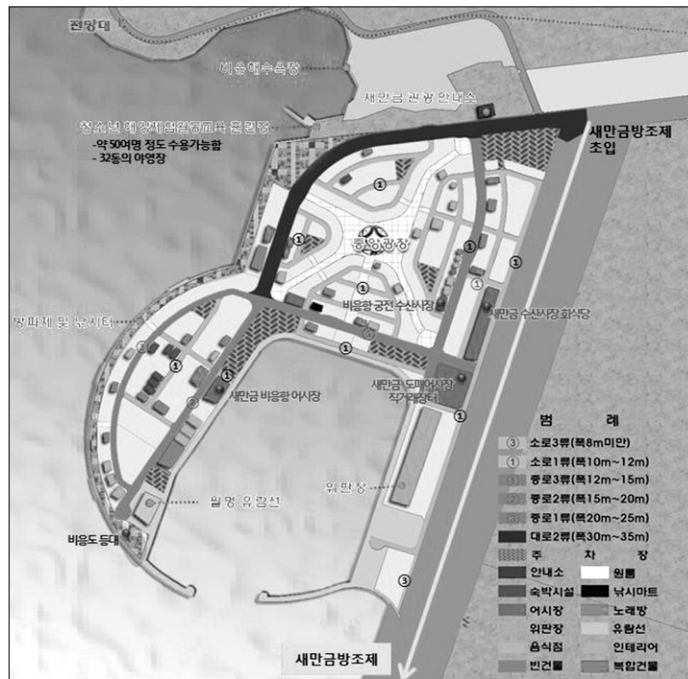


그림 2. 비응항 종합현황도

표 3. 비응항 인근 거주/영업에 불편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해상교통편	1	1.2
육상 도로교통	16	19.5
상하수도	3	3.7
생활쓰레기처리	4	4.9
생필품조달	10	12.2
의료혜택	15	18.3
문화시설	26	31.7
자녀교육 문제	3	3.7
기타	4	4.9
합계	82	100.0

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비응항 개발과정 및 현재 시점에서 비응항에 거주 또는 영업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관한 분석결과이다(표 3). 응답자 중 31.7%가 문화시설의 부족을 불편사항으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육상 도로교통(19.5%), 의료혜택(18.3%) 순으로 나타났다.

비응항 개발사업 진행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응답이다(표 4).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무분별한 상가 조성(29.3%)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비응해수욕장 활용방안(28.0%), 주차장 부지 선정/관리(20.7%)문제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시 병행한 인터뷰에서도 무분별한 상가 조성으로 인한 미분양 상가 증가를 가장 큰 문제로 삼았으며, 주차장 부지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주차장 부족을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 정도에 관한 응답 결과이다(표 5).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한 결과 평균 2.28점으로 비교적 협조적이지 않다는 결론을 시사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시 병행하였던 인터뷰에서도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이 다소 부족하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현재의 비응항 개발과정 및 현재의 시점에서 바라본 비응항 인근 불편사항으로는 문화복

표 4. 비응항 개발과정에서 미흡한 점

구분	빈도(명)	비율(%)
중앙광장 상징물 조성	9	11.0
주차장 부지 선정/관리	17	20.7
무분별한 상가 조성	24	29.3
상인 협의체 구성 및 관리	6	7.3
비응해수욕장 활용 방안	23	28.0
기타	3	3.7
합계	82	100.0

표 5.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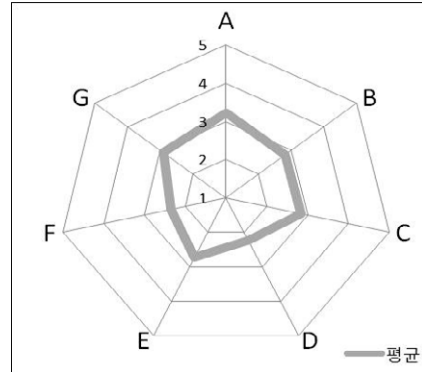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그렇지 않다	26	31.7
그렇지 않다	19	23.2
보통이다	27	32.9
그렇다	8	9.8
매우 그렇다	2	2.4
평균	2.28	100.0

지 시설 부족, 그로 인한 관광객들의 볼거리/즐길거리 부족을 초래하였으며, 무분별한 상가개발 및 적절한 주차장 부지의 선정 및 관리 부재로 지역 상인들의 소득 감소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야기하였다. 이는 비응항 개발을 이끈 관련 기관 및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 및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계획 수립 때문인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관광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다(표 6). 그 결과 전체 평점이 2.79점으로 보통이다(3점)에 못 미치는 점수였다. 비응항 주변 청결도(A)에 관한 질문만 '보통이다(3.0점)'를 넘겼으며, 그 밖의 질문에 대해서는 모두 보통 이하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관광자원 및 살거리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는 현재의 비응항 인근 불편사항 중 비응항 활성화 장애요인에서도 지적되었던 부분으로 연계관광자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표 6. 관광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구분	평균	표준편차
A 주변이 깨끗하다.	3.22	.832
B 주변 교통사정이 편리하다.	2.80	1.082
C 유람선 코스/시간이 적절하다.	2.84	.838
D 관광자원이 풍부하다.	2.23	1.200
E 먹거리가 풍부하다.	2.72	1.034
F 살거리가 풍부하다.	2.34	.959
G 숙박시설이 쾌적하다.	2.91	.945



## 2) 방문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

비응항에 찾아오는 방문관광객들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였으며, ‘전반적으로 관광객 맛이 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문항에 평균 2.70점으로 보통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친절하다.’는 문항에서는 3.37점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비응항이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주민들은 관광객 맞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어 지역주민들이 방문관광객에게 추천하는 관광 요소에 대해 알아보았다. 관광객들에게 추천하는 음식은 생선회(57.3%)가 가장 많았고, 바지락칼국수(12.2%)가 뒤를 이었다. 이는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설문에 응한 대다수의 상인들이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점도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결과로 추천하는 특산품으로 활어/해산물(53.7%)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꽃새우(12.2%)를 꼽았다. 추천하는 숙박업소는 호텔/모텔(76.8%)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숙박업소 자체가 부족하지만 그 중 최근에 들어 호텔/모텔이 몇 곳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기타(12.2%)의 경우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단체 관광객의 투숙이 가능한 대규모 콘도형 숙박업소를 선호하고 있었다.

표 7. 지역주민 추천 주변지역 관광지

구분	빈도(명)	비율(%)
고군산군도	23	28.0
새만금방조제	27	32.9
선유도해수욕장	15	18.3
비응관광어항	5	6.1
금강하구둑	3	3.7
은파관광지	5	6.1
근대역사문화거리	2	2.4
기타	1	1.2
합계	80	100.0

지역주민들이 방문관광객에게 추천하는 주변 관광지는 새만금방조제(32.9%)와 고군산군도(28.0%)를 꼽았다(표 7). 하지만 이러한 주변관광지들은 모두 그곳에 체류하거나 소비를 유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4. 비응항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비응항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은 향후 개발계획의 수립 및 개발

방향 설정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개발 사업에 대한 효과를 개발 전·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지역정체성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 대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보았다. 본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화하였다.

### 1) 지역정체성 측면

지역개발을 진행 과정에서 기존의 지역 이미지가 훼손되고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주민들은 지역개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향후의 개발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통해 각 항목들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지역 이미지가 개선' 항목에서는 평균 2.80점, '지역 홍보효과가 발생' 항목에서는 2.77점,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 활용기회가 제공됐다'는 문항에서는 2.21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표 8).

표 8.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정체성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지역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2.80	.949
지역 홍보효과가 발생했다.	2.77	.907
다양한 볼거리와 여가 활용 기회가 제공됐다.	2.21	.871
평균	2.59	

표 9. 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적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관광소득이 증가했다.	2.43	.861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증가했다.	2.39	.885
관광수입이 지역사회로 환원·재투자됐다.	2.17	.767
생계형 경제활동 및 재산권이 침해됐다.	2.62	.841
평균	2.49	

### 2) 경제적 측면

지역개발에서 경제적인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는 주민들도 가장 원하는 부분일 것이다. 이는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광소득, 고용기회 증대, 지역사회로의 환원, 마이너스효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그 결과 '관광소득이 증가했다'는 항목에 평균 2.43점, '고용기회가 창출되고 증가했다'는 항목에 평균 2.39점, '관광수입이 지역사회로 환원·재투자됐다'는 항목에 2.17점, '생계형 경제활동 및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항목에 2.62점으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특히 '관광수입이 지역사회로 환원·재투자됐다'는 항목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에 가까워, 관광수입이 지역사회로 환원·재투자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제적인 측면은 비응항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 항목 중 가장 낮은 평균점수인 2.49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새만금방조제 완공이후 비응항 인근 상가의 관광소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관광수입역시 사회로 환원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 3) 사회문화적 측면

비응항 개발사업으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떠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그 결과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는 문항에 평균 2.74점, '지역사회의 문화복지시설 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문항에는 평균 2.48점으로 나타났다(표 10). 사회문화적인 측면 중 긍정적인 효과는 보통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사치 풍조 등 사회문제가 발생했다'는 문항에 2.40점,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훼손되었다'는 문항에 2.51점, '방문객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



표 10. 개발사업에 대한 사회문화적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주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졌다.	2.74	.886
지역사회 문화·복지시설 수준이 향상됐다.	2.48	.892
범죄, 사치 풍조 등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	2.40	.901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이 훼손되었다.	2.51	.864
방문객으로 인해 교통이 혼잡해졌다.	2.56	1.020
평균	2.54	

졌다'는 문항에 2.56점으로 사회문화적 측면 중 부정적인 효과는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4) 환경적 측면

비응항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적인 측면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표 11).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는 문항에 평균 3.02점으로 개발효과에 대한 평가 전 부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주변 환경보전에 기여했다'는 문항에 2.77점, '주민의 자연환경보전 의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문항에 2.84점으로 집계되었다.

개발사업에 대한 평가 부문 중 환경적 측면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중에서도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 개선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리커트 5점 척도에서 중간단계인 '보통이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5) 평가의 종합

앞서 비응항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지역 정체성에 관한 문항,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체 평균은 2.79점으로 '보통이다' =3점에 못 미치는 수치를

표 11.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적 평가

구분	평균	표준편차
생활환경 및 위생상태가 개선되었다.	3.02	.720
주변 환경보전에 기여했다.	2.77	.821
자연환경보전 주민의식이 향상되었다.	2.84	.777
평균	2.88	

보였으며, 네 부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부분은 2.49점을 받은 경제적 측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정체성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으로 비응항 인근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 및 그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2007년 개장 이후 경제적인 상승효과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높은 임대료와 매출 하락으로 현재 절반 이상의 점포가 문을 닫은 상태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또한 2010년 4월 완공된 새만금방조제 관광객을 체류시키기 위한 단체관광객을 위한 투숙시설인 리조트와 워터파크, 스쿠버, 보트 등 위락시설 조성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5. 군산 비응항의 활성화 방안

#### 1) 비응항 활성화에 대한 주민 인식과 태도

앞서 비응항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살펴보고,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향후 비응항 개발방향은 어떻게 수립되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한 것은

숙박시설의 고급화(28.0%)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해양레포츠시설 개발(20.7%), 특산품의 브랜드화(13.4%)를 꼽았다(표 12). 이러한 응답결과는 앞선 설문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향후 개발방향 수립 시 비응항 인근의 숙박시설을 좀 더 다양한 규모로 유지하고, 즐길거리 및 쇼핑거리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비응항 개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으로 많은 응답을 보인 비응해수욕장은 활용방안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으로, 설문조사 결과 해안 데크 및 산책로 조성(42.0%)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이어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장과 연계활용(23.5%), 어촌 생태체험장 조성(19.8%)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응해수욕장은 위그선출항이 예정되어 있는

표 12.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

구분	빈도(명)	비율(%)
항만시설 확충	4	4.9
유람선 관광	2	2.4
전망대 설치	4	4.9
해양경관 정비	6	7.3
숙박시설의 고급화	23	28.0
특산품의 브랜드화	11	13.4
민속·문화자원 개발	9	11.0
해양레포츠시설 개발	17	20.7
해안일주도로의 개선	2	2.4
기타	4	4.9
합계	82	100.0

표 13. 비응해수욕장 활용 방안

구분	빈도(명)	비율(%)
청소년 수련장과 연계 활용	19	23.5
어촌 생태체험장 조성	16	19.8
위그선 출항 선착장 조성	10	12.3
해안 데크 및 산책로 조성	34	42.0
기타	2	2.5
합계	81	100.0

곳으로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해안 데크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방문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파악된다.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에 관해 묻는 질문에서는 문화시설(25.6%)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숙박시설 개선 사업(23.2%)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이는 비응항 인근에 즐길거리가 부족하고, 단체관광객 및 가족단위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비응항에 유치하고 싶은 관광·여가시설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표 15). 1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해양휴양시설(33.3%)과 관광 위탁시설(32.1%), 2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해양 스포츠시설(28.6%), 3순위에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관광 위탁시설(24.7%)이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비응항 인근에 즐길거리로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해양 관련 휴양·레포츠시설과 관광 위탁시설 유치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응항 활성화를 위해 관광개발 및 지역 산업 육성에 관한 기타의견을 수집해보았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즐길거리의 확충으로, 주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체험거리가 부족하다는 응답이었다. 기타의견으로 경관정비부분에서 가로경관 정

표 14. 비응항 활성화를 위한 필요 지원책

구분	빈도(명)	비율(%)
주택 및 상가개량	8	9.8
상하수도 개선	1	1.2
항만정비	8	9.8
특산품 개발	7	8.5
문화시설	21	25.6
숙박시설 개선 사업	19	23.2
상가번영회 조직 구성	6	7.3
지역홍보	11	13.4
기타	1	1.2
합계	81	100.0

비, 산책로, 편의시설 조성, 도로교통부분에서 대중교통과 주차공간을 고려한 관리(무분별한 주차단속 지양)에 대한 의견을 살피볼 수 있었다. 또한 어시장의 눈속임판매, 가격표시, 수질 개선, 품질 개선 등 지속적인 단속 필요 등 상인들의 자성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상가의 다변화, 볼거리 먹거리의 다변화, 정부의 관심, 시의 무분별한 단속, 홍보 강화 등의 의견이 있었다.

## 2) 비응항의 활성화 방안

비응항은 새만금 방조제 진출입로로서 관광객의 유입이 예상되고, 인근에 군장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관광객 및 소비층의 꾸준한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다. 하지만 정작 비응항 주변으로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부족해 관광객들의 진출입 통로로만 이용되고 있어 주민들의 소득은 크게 향상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높은 임대료와 방문객 수 감소로 문을 닫고 있는 점포가 늘어 비응항 주변 경제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변 상인들은 자정 결의대회를 갖고, 까치놀 축제, 새만금 걷기대회 등을 개최하여 비응항 활성화

를 도모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비응항은 관광복합어항으로서 단순한 어항시설에 그치지 않고 해양관광 및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휴양관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비응항은 어항시설에 약간의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만을 갖추었을 뿐 체류형 관광복합어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체류형 관광 코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의 비응항은 식사를 한 후 다음 연계관광 코스가 부족하므로 가족단위 관광객 및 단체관광객이 체류할 수 있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관광시설의 조성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먼저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종합리조트 조성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를 뒷받침할 해양레저스포츠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비응항은 가족단위 관광객이 방문하였을 때 바다낚시 외에는 즐길거리가 부족하다. 따라서 비응해수욕장 인근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장과 연계한 복합 해양레저시설을 조성한다면 비응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표 15. 비응항에 유치하고 싶은 관광·여가 시설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해양휴양시설	27	33.3	12	15.6	7	9.1
해양스포츠시설	9	11.1	22	28.6	9	11.7
건강휴양시설	3	3.7	11	14.3	10	13.0
역사 문화탐방 시설	1	1.2	0	0.0	3	3.9
어촌 생태체험시설	6	7.4	3	3.9	7	9.1
낚시관광시설	4	4.9	5	6.5	8	10.4
청소년 수련장	2	2.5	9	11.7	7	9.1
유람선 관광	2	2.5	4	5.2	7	9.1
관광 위탁시설	26	32.1	11	14.3	19	24.7
기타	1	1.2	0	0.0	0	0.0
합계	81	100.0	77	100.0	77	100.0

비응향은 배후단지를 개발하면서 가로경관 조성 및 공원부지의 활용성, 주차장 부지의 운영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주차장부지에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관광객과 상인 모두 불편을 겪고 있다. 비응향으로 오는 대중교통도 전무한 상황에서 자가용 이용자들의 편의시설 또한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관광객들은 비응향에 들렀다가 곧바로 새만금 방조제로 지나쳐가기 가버리기 때문이다.

또한 비응향은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관광지이다. 관광안내소도 새만금방조제에 집중하고 있어 찾아온 방문객 중 비응향의 위치와 역할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비응향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행정적 지원에 더불어 상인들 역시 바가지요금 근절, 판매상품의 품질 개선 등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6. 요약 및 결론

본격적인 새만금시대를 맞이하여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해양관광단지 개발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군산 비응향 역시 복합관광어항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관광개발 분야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평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군산 비응향 개발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활성화방안을 도출해보았다. 연구를 위해 지역주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자료는 통계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응향 개발사업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결과 비응향에 거주·영업하면서 발생한 불편

사항은 문화시설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응향 활성화 장애요인으로는 볼거리·즐길거리의 부족을 꼽았다. 비응향 개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무분별한 상가 조성 및 비응향해수욕장 활용방안 모색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 기관 및 지자체의 협조가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지역주민 및 상인들은 방문관광객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있어서 전반적인 준비는 다소 부족하나, 주민들이 관광객에게 대하는 친절도는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광객들에게 추천하는 음식 및 특산품으로는 생선(활어회)를 꼽았고, 주변관광지는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를, 추천 숙박업소는 호텔·모텔을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역주민들이 비응향 개발 전후를 비교하여 개발사업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지역정체성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에서의 효과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응향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비응향 활성화를 위한 개선점으로 숙박시설의 다양화·고급화, 해양 휴양시설 및 레포츠시설 등 다양한 관광위락시설 조성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응향해수욕장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해안 데크 및 산책로 조성을 희망하고 있었다. 이어 비응향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는 문화시설 확충과 숙박시설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기타 비응향 활성화를 위한 의견으로는 가로경관 정비, 대중교통편 확충, 주차공간 배치 및 관리, 숙박시설, 즐길거리의 다변화, 정기적인 상가 단속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당초 비응향은 관광복합어항으로서 단순한 어항시설에 그치지 않고 해양관광 및 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휴양관광시설 등을 갖춘 복합 생활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계획하였다. 하지만 현재 비응향은 어항시설에 약간의 수산물 가공 및 유통시설만을 갖

추었을 뿐 체류형 관광복합어항이라고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배후단지를 개발하면서 가로경관 조성 및 공원부지의 활용성, 주차장 부지의 운영 등 관련기관의 관리·감독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뿐만 아니라 비응향은 고군산군도, 변산반도 등에 비해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아 새만금방조제를 찾아온 방문객 중 비응향의 위치와 역할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체류형 관광 코스의 개발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조성을 앞당기고, 복합 해양레저시설을 계획적으로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상인들 역시 바가지요금 근절, 판매상품의 품질 개선 등을 통해 건전한 상가문화 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여기에 적절한 홍보가 더해진다면 그 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 생각된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 관계기관의 행정적 노력과 관광객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해진다면 비응향이 관광복합어항으로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주

- 1) 리커트 5점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보통=3점, 매우 그렇다=5점으로 점수화한다.
- 2) 군산시 연도별 관광객 수의 변화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연도	관광객(명)
2001	556,179
2002	2,615,014
2003	2,017,994
2004	4,402,847
2005	4,094,188
2006	5,542,000
2007	5,984,400
2008	5,314,588
2009	5,303,767

자료 : 군산통계연보, 2009

3) 뉴시스, 2007년 6월 15일자 보도자료

4) 비응향 인근 상가의 업종별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업종	개소(수)	업종	개소(수)
안내소	1	원룸	2
숙박시설	7	납시마트	1
어시장	6	노래방	2
위판장	1	유람선	1
편의점	3	부동산	7
음식점	26	인테리어	1
총 58개소			

- 5) 음식점은 총 26개소로 대부분이 횡집이고, 그밖에 백반, 중화요리, 칼국수, 뷔페 등이 있으며, 총 수용 가능 인원은 3,792명이다.
- 6) 청소년 해양체험활동교육 훈련장은 32동의 야영장이 준비되어 있고, 약 50여 명의 인원수용이 가능하다. 방파제는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의의가 있다. 등대의 경우, 타 어항 시설과는 달리 마주보고 있는 형태의 2개(빨간 등대, 흰 등대)가 위치하여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있다. 월명 유람선은 총 3개의 코스로 3개의 유람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코스에 따라 15,000~30,000원의 비용이 들며, 총 648명의 인원수용이 가능하다.

### 참고문헌

강인원 · 손호기, 2006, “지역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식 성향 비교 연구: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8(1), pp.45-63.

고계성, 2011, “해양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지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인식 차이 연구: 경남 창원 진해를 중심으로”, 한국관광연구저널 25(2), pp.42-54.

손은호 · 박덕병, 2010, “관광영향인식이 지역주민의 지지에 미치는 영향”, 농촌경제 33(5), pp.59-77.

양성수 · 허향진 · 서용건, 2009, “제주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 관광연구저널 23(4), pp.199-210.

이승구 · 최규성, 2006, “강원도 폐광지역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태도”, 관광연구저널, 20(2), pp.189-200.

이정록 · 안영진, 2006, 지방도시의 변화와 발전동인-순천

- 시를 사례로, 전남대학교 출판부, pp.124-149.
- 정봉섭, 2010, “관광개발에서 지역주민참여 유형에 관한 연구”, 경기관광연구 제16호, pp.87-105.
- 정하용, 2007,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사회개발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3)
- 조배행 · 최영희, 2005, “관광개발 경과에 따른 안면도 지역 주민의 관광영향 인식의 변화”, 관광연구저널 19(1), pp.165-182.
- 함석중 · 박선희, 2009, “지역축제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동해 수평선축제를 사례로”, 관광연구저널, 23(1), pp.191-206.

교신 : 윤이나,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번지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전화: 062-530-  
2680, 팩스: 062-530-2689, 이메일: shiny-yoon@nate.  
com

Correspondence: Yi-Na Yoon, 300 Yongbong-dong,  
Dukgu, Gwangju, 500-757, Korea, Tel: +82-62-530-  
2680, Fax: +82-62-530-2689, e-mail: shiny-yoon@  
nate.com

최초투고일 2011년 11월 4일  
최종접수일 2011년 11월 19일

## **A Proposed Vitalization Plan based on Residents' Perception for Gunsan Bi-eung Port Development Plan**

Jeong-rock Lee\* · Jong-chun Park\*\* · Hye-young Kim\*\*\* ·

Yi-na Yoon\*\*\*\* · Sun-kyoung Yoo\*\*\*\*

**Abstract** : As a part of the Saemangeum development, the Gunsan Bi-eung port is underway to be developed for a tourism complex. Since the perception and preferences of the resident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eps for the project, those were surveyed and analyzed to generate a proposed vitalization plan. Based on the survey, most of residents had negative opinions on the current development and condition as well as the effectiveness of the development in the future. Residents also pointed out that leisure facilities and higher level of accommodation were necessary, and desired a coastal deck in the Bi-eung beach. Therefore, for vitalization of Bi-eung port area,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resort with sports and leisure facility is suggested to attract visitors. Also, efforts from residents and administrative supports are required in marketing, advertizement, and sound business environment.

**Keywords** : Gunsan Bi-eung port, Saemangeum, Tourist attraction development project, effect of development, local vitalization measure plan

---

\*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Geography, Chonnam National University